

#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다수준 분석의 적용\*

최윤정(崔允禎)\*\*

김지은(金智恩)\*\*\*

##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발달이론과 관련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진로와 학업과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내외적 변인들을 학생 개인과 개인이 속한 학교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1년에 시행한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 진로교육 경험 및 학교 수준에서 제공되는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추론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발달 관련 변인인 자아개념, 진로성숙도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이 인식한 진로지도 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검사, 직업체험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진로강연과 직업체험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진로검사, 학교 및 학과 안내,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진로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진로상담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부적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의 특성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에서는 직업체험활동(1차년도만)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 2차년도 모두 자율학교 및 특목고 여부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실제 및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중·고등학생, 자기주도 학습태도, 진로교육 경험,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다수준 분석

\* 본 연구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종단연구 공모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의 일부분을 발췌, 수정하였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직업 및 진로상담 전공 대우교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직업 및 진로상담 전공 외래강사

## I. 서론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학업수행은 주요한 발달과업이다. 이러한 학업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 등 진로문제와 직결되며, 성인기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급학교의 원만한 진학과 적절한 직업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학생들에게 학업수행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김계현 외, 2009). 우리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기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면에 학습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요구는 학생들에게 높은 학업성취와 좋은 시험성적에 대한 압력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강혜원, 김영희, 2004; 김종백, 김준엽, 2009; 박성희, 김희화, 2008).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부모와 학교가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획일화된 가치의 주입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 학생들이 학업이라는 발달 과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이며(김소영, 2009; 박경빈, 권혁민, 2011; 소연희, 2011),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 시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진로발달 과업을 이루고 자신의 선택이 이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은 학생이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탐색된 꿈을 향해 공부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업수행이라는 발달과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부나 진로계획을 함께 고려하게 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내적인 동기 유발을 통한 학습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김경식, 이현철, 2009).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Super(1996)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능력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며 해당되는 시기마다 주어지는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 다음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한다.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발달 이론은 진로성숙도를 강조한다. 많은 연구들(김수리, 이재창, 2007; 어윤경, 2008)은 진로발달 단계에서 주어지는 진로문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러한 진로성숙도는 학생들의 내적인 학업 동기에 기초한 자기 주도 학습특성과 관련이 있다(김소영, 2009; 박경빈, 권혁민, 2011;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 황매향, 임은미, 2004). 자기주도 학습 태도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한 후에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학업에 대한 내적인 동기가 높은 특성으로 이해된다(이지혜, 2010). 자기주도 학습태도나 자기 조절 학습과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소영, 2009; 황매향, 임은미, 2004)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는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주도 학습태도나 학업동기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몇몇 연구들(김경식, 이현철, 2009;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은 진로성숙도나 진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두 변인들 간의 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진로발달 과업도 보다 더 잘 성취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포부와 계획에 따른 목표가 있는 학생들일 수록 학업에 대한 동기가 더 높다' 라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에 대한 연구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내적인 동기의 역할을 갖게 함으로써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을 수 있다는 추론이 보다 더 가능할 것이다(황매향, 임은미, 2004).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루어야 할 진로발달과 학업수행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즉, 개별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교육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부터 일차적으로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당면한 학업과 진로 발달 과업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학업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중·고등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방안에 대해 개별 학생과 학교의 수준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교육

생애 단계별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들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을 확

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생애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 적절한 발달과업을 제시하고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진로교육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Super는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에 대한 인식인 자아개념이 변화하며 이러한 자아개념의 변화과정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5단계 진로발달 과정으로 보고 각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의 수행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청소년기는 탐색기에 해당되는 단계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Super et al., 1996). 즉,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을 고려한 적합한 진로 대안들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발달 단계별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이다.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적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도로서 진로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발달 정도와 수준의 지표가 된다(Osipow & Fitzgerald, 1996). 이러한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진로교육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흥미가 발달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즐겨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 점차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력이 발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지만 잘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직업 준비를 위해 더욱 중요해진다(Sharf, 2006). 이후 인지적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은 앞서의 발달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 가치, 능력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직업세계와 자신의 능력 그리고 욕구들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에 기초한 진학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희수, 김옥희, 2007; 박완성, 2007; 한상근, 2009). 요컨대,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업과 진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이라는 발달 과업이 분리된 일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이라는 발달 과업에 보다 충실한 태도로 임할 것이다(Akos & Niles,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적절하게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도인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진로 성숙도는 자신에 대한 인식인 자아개념과 함께 발달되는 것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진로 성숙도와 자아개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자기주도 학습태도(Self-Directed Learning: SDL)란 교수자 주도 학습과(Teacher-Directed Learning: TDL)과 대조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시간, 장소,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지식이나 학습기술, 그리고 개인적 발달의 향상을 가져오려는 태도이다(Gibson, 2002).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태도의 개발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교육목표가 된다. 발달적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강한 발달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학습 장면에서는 자기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학생일수록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활용함으로써 평생학습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주체적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손진희, 김안국, 2006; 이지혜, 2010; Zunker, 2007).

자기주도 학습태도 또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가 있다. 학습자의 내재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높은 성취를 이끌어내는 학습 현상을 설명해 왔다(양명희, 2000; 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 Martinez-Pons, 1988). 학습자가 어떻게 자기를 조절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 내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인지와 동기, 행동 중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경식, 이현철, 2009; 양명희, 2000). 첫째, 인지 중심의 연구들(박현정, 2005; 이지혜, 2010; Brown & Palincsar, 1982)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인지전략과 사고의 방법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 조절 학습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은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둘째, 동기 중심의 연구들(김경식, 이현철, 2009; 양명희, 이경아, 2009; 천명희 등, 2011; Pintrich & De Groot, 1990)은 주도적인 학습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서 학습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자기조절 학습 태도는 본질적으로 동기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양명희, 2000).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관련 있는 동기 요인의 측면에서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이 최근에 탐색되어 오고 있으나(김경식, 이현철, 2009),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과 학업 동기나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김소영, 2009; 박경빈, 권혁민, 2011; 천명희 등, 2011; 황매향, 임은미, 2004)은 두 변인간에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들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만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동기를 조절하면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즉, 좀 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시간을 관리하는 행동적 요소들이 자기주도 학습 태도의 중요한 설명 요인들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Britton & Tesser, 1991; Lopez & Little, 1996). 앞서 진로발달 이론에서 검토되었듯이, 진로

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진로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적 요구에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높은 것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이 증가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몇몇 연구들과 학습자의 동기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 환경의 맥락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결과로부터 그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김경식, 이현철, 2009; 정현숙, 2003; Ginsburg & Bronstein, 1993; Gonzalez-DeHass, Williams, & Holbein, 2005; Zimmerman, 1990). 대체로 부모의 관여와 지원 행동은 학생들의 학업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의 학문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 환경의 맥락의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김경식, 2005; 소연희, 2011)에 의하면, 수업준비를 잘하고 교수학습에 열중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동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긍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학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심리내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에 영향을 주는 가정과 학교의 외적 요인들을 통제하여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개인의 주체성, 자율성, 자발성, 개인의 선호와 선택, 자기표현과 창의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장원섭, 2007).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율적 동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 태도는 평생학습 사회에서 주체적인 개인으로 성장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태도는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나 가치에 의해서 관련한 많은 연구들(박현정, 2005; 소연희, 2011; 양명희, 이경아, 2009; 양명희, 2000)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지고 있으며, 학업에 대한 내적인 동기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검토되었듯이,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은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변인 중에 동기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관한 관련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매향과 임은미(2004)는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와 내적인 학업 동기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고 특히,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이 스스로 높다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와 학업 동기간의 관계가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자기 주변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 자신이 처한 발달 단계에서 환경이 요구하는 문제에 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한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김수리, 이재창, 2007).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근거로 찾으려는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2009; 박경빈, 권혁민, 2011). 달리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처한 환경적 요구란 결국엔 학업이며 이것은 진로발달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과정으로 지각함으로써 보다 주도적으로 학업에 임하는 태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의 진로성숙도를 의미하는 진로적응도와 자기조절 학습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천명희 등(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적응도가 높은 집단이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요인인 동기, 인지, 행동 조절의 학습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과 대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업을 위해서는 진로 발달의 수준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조미량, 2005; 황매향, 임은미, 2004)은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의 정적 관계를 연령별, 성별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어,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최근에 학생들의 학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들의 내외적 변인들에 관한 요인들을 분석한 김경식과 이현철(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발달 관련 변인을 학습에 대한 동기 요인으로 설정하고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부수준이나 진로 계획은 학습에 집중하려는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김소영, 2009; 박경빈, 권혁민, 2011; 천명희 등, 2011; 황매향, 임은미, 2004)은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또는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정적인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만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및 자아개념 등의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스스로 목표를 세워 학습하고자 하는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진로교육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지연, 2007; Whiston, Brecheisen, & Stephens, 2003)에 의하면,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더 많이 경험한 학생들이 자아개

념이나 진로성숙도, 목표 의식, 진로결정 효능감 등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발달 수준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정적인 관계가 확인 되고 있고 진로교육 경험은 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 및 수업관련 강연,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직업체험, 진로상담,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여부로서 진로교육의 다양한 형태들을 측정하고 이러한 진로교육 경험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이 속한 학교 수준의 속성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변인, 학교 특성 변인, 학교 목적 사업 등의 교육의 맥락적 환경 변인을 통제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이외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가정 배경 변인에 관한 연구들(김수리, 이재창, 2007; 김중운, 강정임, 2009; 남수정, 2011; 박완성, 김미숙, 2009; 박은선, 2010; 선혜연, 2008; Lopez & Andrews, 1997; Poulter, 2006)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지원 등이 학생들의 진로의식이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의 차이는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진로에 대한 의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지원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진로교육 경험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성별 효과(김희수, 김옥희, 2007; 박은선, 2010; 남수정, 2011)가 보고되고 있어, 진로성숙도와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별 변인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0년과 2011년에 시행한 서울교육중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교육중단연구는 서울시 초·중등 모든 학교 급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정책 수립 및 학생 및 학교 특성 이해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주도의 중단연구이다. 서울교육중단연구 자료는 전체 서울시 학교 중 약 20%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2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층화 2단계 집락 추출 방식으로 표집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교사



및 학교장, 학교에 대한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 생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교육중단연구의 1, 2차년도(2010~2011) 자료 중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학교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서울교육중단연구 자료는 중학교 학생 74개교 4,544명,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83개 학교의 5,240명이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

|      | 원자료<br>학교 수 | 원자료<br>학생 수 | 1차년도 분석대상     |                 | 2차년도 분석대상     |                 |
|------|-------------|-------------|---------------|-----------------|---------------|-----------------|
|      |             |             | 학교 수          | 학생 수            | 학교 수          | 학생 수            |
| 중학교  | 74          | 4544        | 65<br>(87.8%) | 2706<br>(59.6%) | 73<br>(88.0%) | 4026<br>(76.8%) |
| 고등학교 | 83          | 5240        | 62<br>(83.8%) | 2669<br>(58.7%) | 73<br>(88.0%) | 4024<br>(76.8%) |

주: ( )안은 원자료 대비 분석 대상 추출 비율

이들 중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필요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태도, 진로교육 관련 경험,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과 기타 독립 변인들에 모두 유효한 응답을 한 대상만을 연구에 포함시켜, 중학교의 경우 1차년도 65개교 2,706명, 2차년도 62개교 2,669명,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차년도 73개교 4,026명, 2차년도 73개교 4,024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1).

## 2. 연구변인

###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태도로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있고 각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서는 총 9개 문항의 평균값을 종속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과 Cronbach  $\alpha$  계수로 나타낸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모두 .70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lt;표 2&gt;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문항 내용과 신뢰도

| 구인       | 문항 내용                                     | Cronbach $\alpha$ |      |
|----------|---|-------------------|------|
|          |   | 중학교               | 고등학교 |
| 학습<br>방법 |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생각해 본다   | .800              | .744 |
|          | 중요한 내용들은 요점 정리를 하거나 표나 마인드맵 등으로 정리하여 공부한다 |                   |      |
| 학습<br>노력 | 수업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한다                | .797              | .742 |
|          |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      |
|          |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                   |                   |      |
| 학습<br>태도 | 공부나 과제 도중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본다       | .755              | .727 |
|          |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배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                   |      |
|          |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                |                   |      |

## 2) 독립 변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생 수준에서 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진로교육경험 변인을, 학교 수준에서 학교진로지도 변인을 설정하였고, 더불어 모형에서 함께 고려하여 통제하기 위한 학생 및 학교 배경 특성 변인으로 학생 및 가정환경변인, 학교 유형 변인, 학교 목적사업 변인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변인들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학생 및 가정환경, 진로발달, 진로교육경험 변인은 학생 수준의 변인이고, 학교 유형, 학교 목적사업, 학교진로지도 변인은 학교 수준의 변인이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학교 설문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필요에 따라 로그변환을 하거나 평균이나 합산 점수를 구하여 분석 과정에 적절하도록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 학생 수준 변인과 학교유형, 학교진로지도 변인은 동일하지만, 학교 목적사업 변인으로 중학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여부, 사교육 없는 학교 여부 및 교육복지투자특별지원학교 여부가 포함된 반면 일반계고등학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여부,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학교, 특목고 여부가 포함되어 다소 차이가 있다.

<표 3> 독립 변인의 구성 및 내용

| 구분         | 변수명           | 내용       |                               |  |
|------------|---------------|----------|-------------------------------|--|
| 학생수준 통제 변인 | 성별            | 학생의 성별   | 남자=1, 여자=0                    |  |
|            | 학생 및 가정 환경 변인 | 부학력      |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교육년수로 환산한 것        | 초졸=6, 중졸=9, 고졸=12, 2년제대졸=14, 대졸=16, 석사=18, 박사=22 |
|            |               | 소득(로그)   | 월평균가구소득의 자연로그 값               |  |
|            |               | 부모지원     |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정도               | (5점 리커트) 8개 문항의 평균                               |
| 학생수준 변인    | 진로 발달 관련 변인   | 자아개념     | 자신에 대한 생각                     | (5점 리커트) 3개 문항의 평균                               |
|            |               | 진로성숙도    |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 행동에 관한 문항 | (5점 리커트) 4개 문항의 평균                               |
| 학교수준 변인    | 진로 교육 경험 변인   | 교과       |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경험 여부              | 있음=1, 없음=0                                       |
|            |               | 진로 강연    | 진로관련 강연 경험 여부                 | 있음=1, 없음=0                                       |
|            |               | 학교학과안내   | 학교 및 학과 안내 경험 여부              | 있음=1, 없음=0                                       |
|            |               | 진로검사     | 진로관련 검사 경험 여부                 | 있음=1, 없음=0                                       |
|            |               | 직업체험     | 직업체험 경험여부                     | 있음=1, 없음=0                                       |
|            |               | 진로상담     | 진로상담 경험여부                     | 있음=1, 없음=0                                       |
|            |               | 학교 유형 변인 | 공립학교                          | 공사립 여부   |
| 남녀공학       | 남녀공학여부        |          | 남녀공학=1, 기타=0                  |  |
| 남자학교       | 남자학교여부        |          | 남자학교=1, 기타=0                  |  |
| 학교수준 통제 변인 | 학교 목적 사업 변인   | 학력향상     | 학력향상 중점학교여부                   | 학력향상중점학교=1, 해당안됨=0 /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
|            |               | 사교육없는 학교 | 사교육 없는 학교 여부                  | 사교육없는학교=1, 해당안됨=0 /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
|            |               | 교복부      | 교육복지투자특별지원학교 여부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1, 해당안됨=0 / 중학교만                      |
|            |               | 교과교실제 학교 | 교과교실제 시행학교 여부                 | 교과교실제학교=1, 해당안됨=0 / 고등학교만                        |
|            |               | 자율학교     | 자율학교 여부                       | 자율학교=1, 해당안됨=0 / 고등학교만                           |
|            |               | 특목고      | 특수목적고 여부                      | 특목고=1, 해당안됨=0 / 고등학교만                            |
| 학교수준 변인    | 학교 진로 지도 변인   | 별도과목     | 별도과목 편성해 진로지도 지원              | 해당됨=1, 해당안됨=0                                    |
|            |               | 담당교사     | 교과에 포함해 담당교사가 지도              | 해당됨=1, 해당안됨=0                                    |
|            |               | 교사개별지도   | 담임/상담교사가 개별진로지도               | 해당됨=1, 해당안됨=0                                    |
|            |               | 직업체험활동   | 직업체험활동을 제공해 지도                | 해당됨=1, 해당안됨=0                                    |
|            |               | 초청강연     | 외부인사 초청강연을 통해 지도              | 해당됨=1, 해당안됨=0                                    |

### 3. 자료 분석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과 진로 교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각각 학생과 학교의 두 개 수준이 반영된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의 위계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인 회귀모형이 아닌 다수준의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Raudenbush & Bryk, 2002). 자료 분석에는 HLM 7.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가장 먼저 독립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 모형을 분석하여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분산이 어느 정도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 분할되는지 살펴보았다. 다수준 분석에서 기초 모형은 어떠한 독립 변인도 모형에 넣지 않고 단순히 종속변인과 학교 구분만이 반영된 모형으로 다음 단계 분석의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강상진, 1998). 두 번째 연구 모형은 학생 수준의 절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교 수준의 변인을 투입한 형태인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의 배경 특성 변인, 즉 학생 수준에서 학생 및 가정환경 변인, 학교 수준 변인에서 학교 유형 변인과 학교 목적 사업 변인, 학교 진로지도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나타내는 다음의 수식에서  $X$ 는 학생 수준의 독립 변인,  $Z$ 는 학교수준의 독립 변인이고,  $Y$ 는 종속 변인인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나타낸다.

$$\text{학생 수준 } Y_{ij} = \beta_{0j} + \beta_{1j}X_1 + \beta_{2j}X_2 + \dots + \beta_{pj}X_p + r_{ij}, \quad \gamma_{ij} \sim N(0, \sigma^2)$$

$$\text{학교 수준 } \beta_{0j} = \gamma_{00} + \gamma_{01}Z_1 + \gamma_{02}Z_2 + \dots + \gamma_{0q}Z_q + u_{0j}, \quad u_{0j} \sim N(0, \tau_{00}^2)$$

$$\beta_{1j} = \gamma_{10}, \quad \beta_{2j} = \gamma_{20}, \quad \dots, \quad \beta_{pj} = \gamma_{p0}$$

## IV. 연구 결과

### 1. 기초 통계량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수준 분석에서 종속 변인으로 사용된 자기주도 학습태도는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1차 년도에는 3.32, 2차 년도에는 3.24로 나타났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1차 년도에 3.31, 2차 년도에는 3.30으로 나타났다(표 4). 표 5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각각 다수준 분석에 투입된 독립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종속 변인의 기술통계량

|      |                | N    | Mean | S.D. | Min. | Max. |
|------|----------------|------|------|------|------|------|
| 중학교  | 1차년도 자기주도 학습태도 | 2706 | 3.32 | .70  | 1.00 | 5.00 |
|      | 2차년도 자기주도 학습태도 | 2669 | 3.24 | .72  | 1.00 | 5.00 |
| 고등학교 | 1차년도 자기주도 학습태도 | 4026 | 3.31 | .66  | 1.00 | 5.00 |
|      | 2차년도 자기주도 학습태도 | 4024 | 3.30 | .68  | 1.00 | 5.00 |

<표 5> 독립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 변인명         | 중학교  |      |      |      |      |      |      |      | 고등학교 |      |      |      |      |      |      |      |
|-------------|------|------|------|------|------|------|------|------|------|------|------|------|------|------|------|------|
|             |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             | M    | S.D. | Min  | Max  | M    | S.D. | Min  | Max  | M    | S.D. | Min  | Max  | M    | S.D. | Min  | Max  |
| <b>학생수준</b> |      |      |      |      |      |      |      |      |      |      |      |      |      |      |      |      |
| 성별          | .51  | .50  | .00  | 1.00 | .51  | .50  | .00  | 1.00 | .55  | .50  | .00  | 1.00 | .55  | .50  | .00  | 1.00 |
| 부학력         | 14.6 | 2.7  | 6.00 | 22.0 | 14.6 | 2.7  | 6.00 | 22.0 | 14.7 | 2.8  | 6.00 | 22.0 | 14.7 | 2.8  | 6.00 | 22.0 |
| 소득(로그)      | 6.10 | .65  | 3.00 | 9.11 | 6.11 | .65  | 2.71 | 9.11 | 6.08 | .68  | 1.95 | 9.20 | 6.08 | .68  | 1.95 | 9.20 |
| 부모지원        | 3.48 | .56  | 1.00 | 5.00 | 3.38 | .57  | 1.00 | 5.00 | 3.27 | .57  | 1.00 | 5.00 | 3.19 | .58  | 1.00 | 5.00 |
| 자아개념        | 3.47 | .86  | 1.00 | 5.00 | 3.48 | .86  | 1.00 | 5.00 | 3.61 | .79  | 1.00 | 5.00 | 3.65 | .78  | 1.00 | 5.00 |
| 진로성숙도       | 3.90 | .84  | 1.00 | 5.00 | 3.82 | .82  | 1.00 | 5.00 | 3.88 | .77  | 1.00 | 5.00 | 3.93 | .73  | 1.00 | 5.00 |
| 교과          | .41  | .49  | .00  | 1.00 | .41  | .49  | .00  | 1.00 | .56  | .50  | .00  | 1.00 | .40  | .49  | .00  | 1.00 |
| 진로강연        | .31  | .46  | .00  | 1.00 | .37  | .48  | .00  | 1.00 | .64  | .48  | .00  | 1.00 | .60  | .49  | .00  | 1.00 |
| 학교학과<br>안내  | .30  | .46  | .00  | 1.00 | .30  | .46  | .00  | 1.00 | .60  | .49  | .00  | 1.00 | .50  | .50  | .00  | 1.00 |
| 진로검사        | .64  | .48  | .00  | 1.00 | .70  | .46  | .00  | 1.00 | .89  | .31  | .00  | 1.00 | .84  | .37  | .00  | 1.00 |
| 직업체험        | .26  | .44  | .00  | 1.00 | .28  | .45  | .00  | 1.00 | .37  | .48  | .00  | 1.00 | .23  | .42  | .00  | 1.00 |
| 진로상담        | .37  | .48  | .00  | 1.00 | .35  | .48  | .00  | 1.00 | .54  | .50  | .00  | 1.00 | .45  | .50  | .00  | 1.00 |
| <b>학교수준</b> |      |      |      |      |      |      |      |      |      |      |      |      |      |      |      |      |
| 공립학교        | .85  | .36  | .00  | 1.00 | .76  | .43  | .00  | 1.00 | .40  | .49  | .00  | 1.00 | .40  | .49  | .00  | 1.00 |
| 남녀공학        | .86  | .35  | .00  | 1.00 | .84  | .37  | .00  | 1.00 | .42  | .50  | .00  | 1.00 | .42  | .50  | .00  | 1.00 |
| 남자학교        | .08  | .27  | .00  | 1.00 | .08  | .27  | .00  | 1.00 | .34  | .48  | .00  | 1.00 | .34  | .48  | .00  | 1.00 |
| 학력향상        | .18  | .39  | .00  | 1.00 | .06  | .25  | .00  | 1.00 | .08  | .28  | .00  | 1.00 | .08  | .28  | .00  | 1.00 |
| 사교육<br>없는학교 | .22  | .41  | .00  | 1.00 | .13  | .34  | .00  | 1.00 | .10  | .30  | .00  | 1.00 | .10  | .30  | .00  | 1.00 |
| 교복투         | .18  | .39  | .00  | 1.00 | .42  | .50  | .00  | 1.00 | -    | -    | -    | -    | -    | -    | -    | -    |
| 교과교실제       | -    | -    | -    | -    | -    | -    | -    | -    | .19  | .40  | .00  | 1.00 | .19  | .40  | .00  | 1.00 |
| 자율학교        | -    | -    | -    | -    | -    | -    | -    | -    | .16  | .37  | .00  | 1.00 | .16  | .37  | .00  | 1.00 |
| 특목고         | -    | -    | -    | -    | -    | -    | -    | -    | .12  | .33  | .00  | 1.00 | .12  | .33  | .00  | 1.00 |
| 별도과목        | 1.71 | .98  | 1.00 | 4.00 | 2.56 | .99  | 1.00 | 4.00 | 2.72 | 1.0  | 1.00 | 4.00 | 2.72 | 1.0  | 1.00 | 4.00 |
| 담당교사        | 3.14 | .61  | 1.00 | 4.00 | 3.26 | .60  | 1.00 | 4.00 | 2.95 | .80  | 1.00 | 4.00 | 2.95 | .80  | 1.00 | 4.00 |
| 교사개별<br>지도  | 3.38 | .52  | 2.00 | 4.00 | 3.58 | .50  | 3.00 | 4.00 | 3.55 | .50  | 3.00 | 4.00 | 3.55 | .50  | 3.00 | 4.00 |
| 직업체험<br>활동  | 2.98 | .48  | 1.00 | 4.00 | 3.03 | .44  | 1.00 | 4.00 | 2.18 | .90  | 1.00 | 4.00 | 2.18 | .90  | 1.00 | 4.00 |
| 초청강연        | 2.88 | .45  | 1.00 | 4.00 | 2.97 | .40  | 2.00 | 4.00 | 3.08 | .49  | 1.00 | 4.00 | 3.08 | .49  | 1.00 | 4.00 |

## 2.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 1) 기초모형 분석 결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전체 분산을 학생 수준 분산과 학교 수준 분산으로 나누어 각 수준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초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중학교 1차 년도의 학교수준 분산은 .018, 학생수준 분산은 .468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전체 분산 중 학생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은 96.4%, 학교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2차 년도의 경우 학생 수준 설명비율은 98.5%, 학교 수준 설명비율은 1.5%로 나타났다. 강상진, 전민정과 장지현(2005)은 학교 수준 분산의 비율이 5% 이상이면 집단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10%이상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1차 년도와 2차 년도 모두 학교수준 분산의 비율이 5%보다 작아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있어 학교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학교의 경우 학생 특성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관련성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6>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 구분        | 중학교      |       |          |       | 고등학교     |       |          |       |
|-----------|----------|-------|----------|-------|----------|-------|----------|-------|
|           | 1차년도     |       | 2차년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 고정효과      | 회귀계수     | 표준 오차 | 회귀계수     | 표준 오차 | 회귀계수     | 표준 오차 | 회귀계수     | 표준 오차 |
| 절편        | 3.316*** | .021  | 3.242*** | .018  | 3.314*** | .021  | 3.304*** | .030  |
| 무선효과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 학교수준      | .133***  | .018  | .089***  | .008  | .275***  | .075  | .241***  | .058  |
| 학생수준      | .684     | .468  | .717     | .514  | .604     | .365  | .638     | .407  |
| Total     |          | .486  |          | .521  |          | .440  |          | .464  |
| 학생수준 분산비율 | 96.4%    |       | 98.5%    |       | 82.9%    |       | 87.5%    |       |
| 학교수준 분산비율 | 3.6%     |       | 1.5%     |       | 17.1%    |       | 12.5%    |       |

주: \*\*\* p<.001, \*\* p<.01, \* p<.05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1차 년도의 학교수준 분산은 .075, 학생수준 분산은 .365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태도 분산 중 학교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17.1%였고, 2차 년도의 학교수준 분산은 .058, 학생수준 분산은 .407로 학교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12.5%로 나타

났다. 앞서 제시한 강상진, 전민정과 장지현(2005)의 기준에 따른다면 고등학교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학교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특성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대한 영향력과 더불어 어떠한 학교 수준 독립 변인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다음의 표 7은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각각에 대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여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대한 독립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인 자아개념, 진로성숙도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1, 2차년도 모든 분석 결과에서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 < .001$ ), 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그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진로 교육 경험 변인들 중에서는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 경험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특성을 보였고, 진로관련 강연 경험은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2차 년도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01$ ).

<표 7>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대한 다수준 분석 결과

| 구분                                | 중학교      |          |              |          | 고등학교         |          |              |          |
|-----------------------------------|----------|----------|--------------|----------|--------------|----------|--------------|----------|
|                                   | 1차년도     |          | 2차년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 고정효과                              | 회귀<br>계수 | 표준<br>오차 | 회귀<br>계수     | 표준<br>오차 | 회귀<br>계수     | 표준<br>오차 | 회귀<br>계수     | 표준<br>오차 |
| 학생수준                              |          |          |              |          |              |          |              |          |
| 절편                                | .416     | .184     | .314         | .195     | .774***      | .188     | .656**       | .202     |
| 학생<br>및<br>가<br>정<br>환경<br>변<br>인 | 성별       |          | .018 .024    |          | .009 .029    |          | -.057 .031   |          |
|                                   | 부학력      |          | .030*** .005 |          | .018*** .005 |          | .017*** .004 |          |
|                                   | 소득(로그)   |          | .013 .019    |          | .047* .023   |          | .008 .014    |          |
|                                   | 부모지원     |          | .133*** .024 |          | .146*** .023 |          | .120*** .020 |          |
| 진<br>로<br>발<br>달<br>변<br>인        |          |          |              |          |              |          |              |          |
|                                   | 자아개념     |          | .260*** .015 |          | .230*** .019 |          | .229*** .013 |          |
|                                   | 진로 성숙도   |          | .236*** .015 |          | .209*** .019 |          | .194*** .014 |          |

|            |         |        |      |         |      |         |      |         |      |
|------------|---------|--------|------|---------|------|---------|------|---------|------|
| 진로교육 경험 변인 | 교과      | -.007  | .026 | .017    | .025 | .042*   | .017 | .068*** | .020 |
|            | 진로강연    | .003   | .026 | .089*** | .024 | .027    | .026 | .085*** | .020 |
|            | 학교학과안내  | .077** | .026 | .032    | .033 | .060**  | .020 | .075*** | .020 |
|            | 진로검사    | .067** | .025 | .017    | .031 | .103**  | .036 | -.010   | .029 |
|            | 직업체험    | .064** | .023 | .057*   | .029 | -.035   | .022 | .049    | .026 |
|            | 진로상담    | -.030  | .024 | -.042   | .027 | -.051** | .019 | -.028   | .019 |
| 대학교수준      |         |        |      |         |      |         |      |         |      |
| 학교유형 변인    | 공립학교    | .004   | .030 | .021    | .041 | -.108*  | .050 | -.080   | .048 |
|            | 남녀공학    | -.016  | .049 | -.022   | .039 | .001    | .050 | .026    | .046 |
|            | 남자학교    | -.029  | .065 | .012    | .073 | -.082   | .048 | -.053   | .041 |
| 학교목적 사업 변인 | 학력향상    | .001   | .078 | .008    | .028 | .045    | .035 | .063    | .053 |
|            | 사교육없는학교 | .008   | .037 | .036    | .055 | .078    | .050 | .029    | .056 |
|            | 교복투     | -.011  | .035 | .007    | .045 |         |      | -       | -    |
|            | 교과교실제학교 |        |      |         |      | -.015   | .031 | -.022   | .028 |
|            | 자율학교    |        |      |         |      | .189**  | .060 | .108*   | .050 |
|            | 특목고     |        |      |         |      | .366*** | .058 | .252*** | .049 |
| 학교진로지도 변인  | 별도과목    | -.005  | .039 | .012    | .011 | .004    | .014 | .009    | .014 |
|            | 담당교사    | -.021  | .015 | .020    | .026 | .002    | .018 | .007    | .018 |
|            | 교사개별지도  | -.022  | .025 | .038    | .029 | -.018   | .028 | -.009   | .029 |
|            | 직업체험활동  | .040*  | .032 | -.037   | .038 | .021    | .020 | .006    | .019 |
|            | 초청강연    | .022   | .032 | .022    | .032 | .054    | .028 | .045    | .029 |
|            |         |        |      |         |      |         |      |         |      |
|            | 무선희과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            | 학교수준    | .058*  | .003 | .056*   | .003 | .079*** | .006 | .071*** | .005 |
|            | 학생수준    | .550   | .303 | .615    | .378 | .518    | .269 | .542    | .294 |
|            | 총분산     |        | .306 |         | .381 |         | .274 |         | .298 |

주: \*\*\* p<.001, \*\* p<.01, \* p<.05

한편 학교 및 학과 안내 경험은 중학교의 2차년도 분석에서만 유의미하지 않고 다른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01), 진로관련 검사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1차년도 분석에서만 유의미하였고(p<.01), 직업체험 경험은 중학교 분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이상의 변인들은 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태도 수준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상담 경험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1차년도 분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음(-)의 계수를 보여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태도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 배경 특성 변인들 중에서는 학생 및 가정환경 변인 중 아버지의 학력과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가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1, 2차년도 모든 분석 결과에서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 < .001$ ), 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그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인들 중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변인들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1차년도 분석 결과에서 유일하게 직업체험활동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높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율학교와 특목고 여부의 영향력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p < .05$ ) 자율학교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와 특목고인 경우 그렇지 않은 학교들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1차년도 분석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년도 분석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 V. 논의

본 연구는 진로발달이론과 관련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진로와 학업과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학생과 학교 수준의 위계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자아개념 그리고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교육 경험은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나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실제와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매우 유의미하게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 내지는 진로 적응도와 학업 동기 또는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김소영, 2009; 박경민, 권혁민, 2011; 천명희 등, 2011; 황매향, 임은미,

2004)들이 두 변인간의 정적인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 있다는 것과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진로성숙도가 학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학업 수행이라는 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라 가정하고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와의 관계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부수준이나 진로 계획이 학습자로 하여금 동기 유발을 가져옴으로써 학업에 집중하려는 학습태도가 향상된다는 김정식과 이현철(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와 자아개념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이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둘 간의 관계에서 학업동기가 매개변인이 될 때,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를 매개로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변량과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가 없다면, 본 연구에서 가정한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대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보다 명확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추후에는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가 학생들의 인지와 동기, 행동의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진로성숙도란 주어진 진로 발달 단계에서 자신의 환경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도로서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외적인 환경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높을수록 진로 성숙도가 높다고 가정한다(Super et al., 1996). 이론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다는 것은 초인지 전략 사고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인지 중심의 연구들(박현정, 2005; 이지혜, 2010; Brown & Palincsar, 1982)에 의하면,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메타 인지 사고의 전략을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진로성숙도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라는 행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려는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메타 인지, 진로포부와 같은 동기,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세 가지 측면 모두를 살펴볼 수 있는 구인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진로 발달이 학업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이 인식한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상담을 제외하고 대체로 관계의 크기는 미미하였지만,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학교 진로교육에 관한 성과연구들(이지연, 2007; Whiston et al., 2003)에 기초하여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더 많이 경험한 학생들이 자아개념이나 진로성숙도가 보다 높다는 결과와 이러한 진로 발달 관련 변인들과 자

기주도 학습태도와의 정적인 관계들(천명희 등, 2011; 황매향, 임은미, 2004)을 바탕으로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1학년 때에는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검사, 직업체험이 그리고 2학년에서는 진로강연과 직업체험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 2차년도 모두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 경험은 직업체험으로 나타난 바, 중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은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장원섭, 2007).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 때에는 진로검사, 학교 및 학과 안내,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그리고 2학년에서는 진로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진로상담은 오히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장 대학 입학을 위해 구체적인 진로 전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학교 및 학과 안내의 진로교육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추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가 학교 및 학과 안내 위주로 이루어지고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지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태도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등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의 목표로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학생들이 인식한 진로상담의 경험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1차년도 분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음의 계수를 보여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태도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 경험의 질적 수준이 동일하지 않고 학생 수준에서 개별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지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상담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로상담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과대해석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외 연구결과(Whiston 등, 2003)에 의하면, 진로상담 전문가 없이 이루어진 진로교육이나 지도가 가장 비효과적이었다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상담이 전문적 상담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2011)가 시행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전 2010년도 고등학교 자료에서만 진로상담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부적인 관계가 확인된 것인 만큼, 앞으로 종단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부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외재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들의 가정배경 변인

으로 아버지의 학력 및 소득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습태도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관여와 지원 행동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자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김경식, 이현철, 2009; 정현숙, 2003)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학생들이 진로발달과 학업수행의 발달과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경험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따른 진로발달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낮고 가계소득이 낮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진로발달 수준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현상이다(Akos & Niles, 2007).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경우, 진로발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모델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취에 대한 지원이나 압력이 약하며, 재능이나 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진로 멘토링이나 진로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학교 차원에서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학부모 교육 강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부모 지원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개인 외적 배경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및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이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포착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비록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진로관련 경험이 결핍되고 적절한 지원이나 개입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습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학교 수준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의 경우 1차년도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직업체험활동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운영하는 학교에 속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의 형태가 직업 체험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학교 진로교육에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에서는 1차년도 분석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태도가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분석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학교 수준 변인들 중 고등학교 자료 분석에만 포함된 자율학교와 특목고 여부의 영향력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율학교와 특목고의 경우는 학생들이 이미 자기의 진로에 대해 상당히 탐색한 후에 고등학교 진학이 결정된 학생들로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의 기초선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요한 두 가지 발달 과업인 진로발달과 학업 수행과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형성하는데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 진로교육 경험의 역할을 조명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교육종단 연구에서 수집된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지역과 단위 학교에 따른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특히,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경험은 다른 단위학교의 경우와는 다른 경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연구로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들은 탐색기의 진로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으로서 학업 수행을 향상키기 위해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이 동기의 역할이 된다는 가정이 지지되었으나 진로발달 단계가 탐색기 이후인 확립기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미 진로 선택이 좁혀진 상황에서 자신의 전공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학업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 학업 태도와의 관계의 방향성은 진로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차 비교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교육종단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의미하는 구인들을 측정하는 도구의 정교성이 떨어지는 제한점이 있어 추후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상진 (1998). 교육 및 사회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다층모형과 전통적 선형모형과의 비교 분석 연구. **교육평가연구**, 11(1), 207-258.
- 강상진, 전민정, 장지현 (2005).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문제행동 비교 분석-3수준 다층 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pp. 155-186). 서울: 한국사회학회.
- 강혜원, 김영희 (2004). 학업스트레스 및 성적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883-897.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
- 김경식, 이현철 (2009). 학습태도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학생 내·외적 요인 분석: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7(2), 181-207.
-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천성문 공저 (2009).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제 2판. 서울: 학지사.
- 김소영 (2009). 남자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종백, 김준엽 (2009). 학업 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중운, 강점임 (200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3), 121-135.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김희수, 김옥희 (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57-68.
- 남수정 (2011).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83-304.
- 박경빈, 권혁민 (2011).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및 자기 주도적 학습 특성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1(1), 1-17.
- 박성희, 김희화 (2008).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3), 159-182.

- 박완성 (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87-101.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박은선 (2010). 아버지의 특성과 긍정적 인지와 질문이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3), 1117-1136.
- 박현정 (2005).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습전략의 사용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한국교육**, 32(1), 203-222.
- 선혜연 (2008).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1(3), 49-67.
- 소연희 (2011). 학습자가 지각한 교사의 수업활동, 자기 주도학습,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인 관계분석. **아동교육**, 20(2), 19-32.
- 손진희, 김안국 (2006).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7(1), 235-265.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명희, 이경아 (2009). 알과걸 탐색과 학습관련 심리적 특성 분석. **교육과학 연구**, 40(3), 31-53.
- 어윤경 (2008).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 변화에 대한 다층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23-41.
- 이지연 (2007).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과 모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129-150.
- 이지혜 (2010).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48(2), 67-92.
- 장원섭 (2007). 맥락 중심의 평생 진로교육 제안. **진로교육연구**, 20(2), 1-13.
- 정현숙 (2003). 학업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도행동과 자녀의 학업동기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랑 (2005).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 의과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이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4), 161-177.
- 한상근 (2009).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4), 19-36.
- 황매향, 임은미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Akos, P., & Niles, S. (2007). Promoting educational and career planning in schools. In B. T. Erford (Eds.), *Transforming the School Counseling Profession* (2nd ed. pp.195-209). New

Jersey: Pearson.

- Brown, A. L., & Palincsar, A. S. (1982). Inducing strategic learning from texts by means of informed, self-control training. *Topics in Learning and Learning Disability*, 2, 1-18.
- Britton, B. K., & Tesser, A. (1991). Effects of time management practice on college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450-410.
- Gibbson, M. (2002). *The Self-Directed Learning Handbook\_challenging adolescent students to excel*. CA: Jossey-Bass.
- Ginsburg, G. S., & Bronstein, P. (1993). Family factor related to children's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orien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1461-1474.
- Gonzalez-DeHass, A. R., Willems, P. P., & Hobein, M. F. D. (2005).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7(2), 99-123.
- Lopez, R. G., & Andrews, S. (199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304-307.
- Lopez, D. F., & Little, T. D. (1996). Children's action-control beliefs and emotional regulation on the social domai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99-312.
- Osiopw, S. H., & Fitzgerald, L. (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4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Poulter, S. B. (2006). *The father factor: how your father's legacy impacts your career*. New York: Prometheus Books.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Sharf, R. S. (200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4th eds. Connecticut: Cengage Learning.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Whiston, S. C., Brecheisen, B. K., & Stephens, J. (2003). Does treatment modality affect career counseling effect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390-410.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88). Construct validation of a strategy model of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84-290.



- Zimmerman, B. J. (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3-17.
- Zunker, V. G. (2006). *Career Counseling-a Holistic Approach* (7th ed.). CA: Thompson.

\* 논문접수 2012년 5월 10일 / 1차 심사 2012년 6월 13일 / 게재승인 2012년 6월 20일

\* 최운정: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내 교육상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직업 및 진로상담 전공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여성 진로상담과 청소년 및 대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으로 최근의 출판된 논문으로는 진로상담 수퍼비전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상담학연구)이 있다.

\* E-mail: cyjmom@kut.ac.kr

\* 김지은: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측정·평가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Texas A&M 대학에서 교육심리학과 내 연구, 측정, 통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직업 및 진로상담 전공 외래강사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교육효과 평가, 학생 선발 평가 및 입학사정관제, 다층 및 종단자료 분석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의 기초학력 향상 효과 분석(초등교육연구)이 있다

\* E-mail: okjk9312@naver.com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ers: Application of Multilevel Analysis

Choi, Yoon-Jung\*

Kim, Ji-Eu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n aim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er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in 2010 and 2011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tudents' career education experience, various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and career education provided by school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pplying Multileve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lf-conception, career maturity were giving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Second, the student's career education experience had exhibited different effects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ers. Three experiences during the first year in middle school, guidance about school and major, tests for career and job experience, and two experiences during the second year, lectures on career and job experienc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high school, while tests for career, guidance about school and major and career guidance in school curriculum were positive in the first year, the experience of career counseling in the second year were identified the negative relation to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Third, among the school characteristics variables, the supply of job experiences ha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to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middle school, and autonomous high school and special high school also showed positive re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career education and related research in middle and high school were discussed.

Key words: middle and high schooler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career education experience, self-conception, career maturity, multilevel analysis

---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Lecture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